

“불안할 땐 달러”...외화예금 석달 연속 증가

한은 '5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예금 809억2000만달러 5대은행 6월 잔액 470억달러...2월보다 104억 28% 급증

글로벌 경기부진과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외화예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5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09억2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27억4000만달러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친 3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거주자 외화예금은 2월(685억1000만달러) 이후 3월(752억9000만달러), 4월(781억8000만달러), 5월(809억2000만달러)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화 종류별로는 달러화예금(699억

2000만달러)과 유화예금(41억4000만달러)이 19억2000만달러, 6억8000만달러씩 늘었다. 국내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30%나 늘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470억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2월 말 잔액(366억1300만달러)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달러예금 잔액(449억9000만달러)도 작년 같은 시점(5월 말)과 비교해 29% 많다. 2월 말 366억1300만달러였던 달러예금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3월 말 432억2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66억달러나 뛰었다. 이후에도 4월(말 기준 449억5000만달러)과 5월(말 기준 449억9000만달러), 6월(11일 기준 470억100만달러)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추이
(단위: 달러)

| | | | |
|---------|------------|------------|------------|
| 거주자예금 | 752억 9000만 | 781억 8000만 | 809억 2000만 |
| 달러 | 685억 1000만 | 711억 1000만 | 737억 1000만 |
| 유화 | 432억 2000만 | 440억 5000만 | 449억 9000만 |
| 5대은행 잔액 | 366억 1300만 | 432억 2000만 | 449억 9000만 |
| | 2월 | 3월 | 4월 |

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율도 1월(-1.5%)과 2월(-5.5%)까지는 '마이너스(-)'였지만, 3월 이후로는 24.7~32.1%에 이르고 있다. 광주은행이 지난 달 새로 출시한 '2020 달러전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1차 판매 기간(5월11~31일) 동안 95좌가 몰려 163만달러(원화 약 20억원)이 팔렸다. 이 상품은 최소 미화 1000달러부터 최대 30만달러까지, 6개월 또는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미 달러(USD) 총 1500만

달러 한도로 판매하며, 소진되면 판매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기본금리 ▲6개월 연 0.55% ▲1년 연 0.7%를 제공하고, 우대금리를 최대 0.65%p까지 제공해 1년제 가입 때 최대 1.3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신규금액 5000~10만달러 이상인 경우 0.05%포인트~0.15%포인트 ▲금리우대쿠폰 제시고객 0.05%포인트~0.4%포인트 ▲원화를 외화로 전액 환전 가입 때 0.4%포인트가 적용된다. 상품 가입 및 만기해지 때는 환율우대 50%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오는 7월31일까지 판매한다. 김현성 광주은행 외환영업부장은 "저성장·저금리시대 대안상품으로 출시한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요구를 반영한 재테크 상품"이라며 "높은 이율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은 물론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강 챙기고 실속도 챙기고”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전국 롯데마트는 오는 24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돼 가격이 낮아진 페루산 아보카도를 회원에 한해 50% 할인된 개당 990원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관리자 월 급여 859만원 서비스업 203만원 최저

관리직 종사자는 월 평균 859만원으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업 종사자 월급여액은 월 평균 200만 원을 겨우 넘어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통계청의 2014년과 2019년 직종·성별·임금 및 근로조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관리직의 월 급여액은 평균 859만원으로 전 직종 중 1위를 차지 했으며 2014년 대비 39.2% 상승했다. 서비스업 종사자 월 급여액이 203만원으로 5년동안 30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무려 8배나 더 올랐다. 전 직종 평균 월 급여액인 326만원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월급여액 2위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평균 월 급여액은 369만원 이었다. 3위는 '사무 종사자' (358만원)였다. 이밖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96만원), '판매 종사자' (290만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0만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0만원), '단순노무종사자' (210만원) 순이었다. 급여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 (203만원)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햇마늘 1일 3쪽...활력·건강 충전



18일 김석기(왼쪽 4번째)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목포에서 열린 '햇마늘 산지가격 특판전'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목포서 특판전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부족한 마늘·양파 농가를 위한 특판전이 18~19일 목포에서 열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목포시 옥암동 농협 목포농산물유통센터에서 '햇마늘·햇양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부진과 수입산 김치 유통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늘·양파 생산농가를 위해 특판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에서는 올해 지역에서 생산된 햇마늘을 시중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피마늘 20kg은 4만8000원, 1kg 2600원에 내놓는다. 이날 행사장을 찾으면 마늘 장아찌, 마늘청, 양파김치 조리 시연도 볼 수 있다. 한편 전남본부는 전남도와 328ha 규모

마늘 밭을 산지 폐기하며 시장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마늘 수매 규모는 정부 3061t, 농협 2980t 등 6000t이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이번 산지가격 특판전 행사를 통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믿고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형마트·중소 납품업체 '눈물의 떨이'

재난지원금 사용 제외에 재고 상품 75% 할인 판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들을 위해 각 대형마트·아웃렛 등이 직접 재고 처리에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쓸 수 없게 되면서 유통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은 이날부터 25일까지 1층 특별매장에서 '락앤락' 인기 이월상품 300여 종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고 75%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롯데아울렛 측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해 식품 위생에 신경 쓰는 가족 단위 소비자들과 캠핑족을 위한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캄도마 살균기(8만5900원), 캠핑 클러백(21 / 1만2800원), 메탈볼타보온도시락(2만5800원), 휴대용 텀블러(1만4200원), 아이스크림(6500원) 등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선풍기, 멀티믹서

기, 핸드스팀다리미, 식기건조대, 리빙박스 등 주방용품부터 소형가전까지 다양한 상품이 마련된다. 21일까지 주말 동안에는 초특가전도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울 상반기 매출 직격탄을 맞은 주요 유통매장들은 비대면 생방송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을 달래고 있다. 롯데백화점 호남충정지역은 지난 3월부터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지역 아울렛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과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개 브랜드와 60차례 넘는 생방송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송출해왔다.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의 순서로 일주일씩 차례로 '봉장어(바닷장어) 할인전'에 들어간다. 해당 대형마트에서는 이 기간에 봉장어를 10~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한 봉장어가 국내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